

문화충격 실상 상정한 언어학자 다섯 명의 명쾌한 분석과 예단



〈출판저널〉 10월호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에 《한국어가 사라진다면》과 시정곤 씨 외 4명의 저자가 선정됐다. 공동 저자의 책이 선정된 것은 지난 9월호에 이어 두 번째로, 이는 각 분야 전문가가 동일한 콘텐츠를 공동집필할 경우 저작의 질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을 간접증명하는 사례로 분석된다.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선정회의는 9월 14일(일요일) 있었다. 후보군을 이룬 10종의 책은 윤명철의 《고구려 해양사 연구》, 김현식의 《색깔 논쟁》, 허동현 박노자의 《우리 역사 최전선》, 김순웅의 《한 남자의 그림 사랑》, 이용숙의 《오페라, 행복한 중독》, 박형준의 《저녁의 무늬》, 최인석의 《이상한 나라에서 온 스파이》, 현대경제연구원의 《허브 한반도》, 강수미의 《서울생활의 재발견》, 시정곤 정주리 장영준 박영준 최경봉의 《한국어가 사라진다면》이었고, 이 중 최종 선정회의에서 보다 깊이 있게 논의된 저작은 《고구려 해양사 연구》, 《우리 역사 최전선》, 《오페라, 행복한 중독》, 《저녁의 무늬》, 《서울생활의 재발견》, 《한국어가 사라진다면》 등 6종이었다.

《고구려 해양사 연구》는 해양사 연구의 독특한 영역을 개척한 윤명철 교수의 경험주의적 역사관이 낳은 역저로서, 특히 말과 뗏목을 타고 자신의 연구영역을 탐사하는 등 책상받이에서 탈피한 저자 고유의 역사서술은 마땅히 깊이 있는 존중의 대상이라는 평을 받았다.

《우리 역사 최전선》은 특유의 논리로 무장하고 있는 '건강한 보수주의자'와 '개인주의적 진보주의자'의 논쟁을 담은 책으로 한국의 근대화 100년에 대한 실증적 학문적 접근을 통해 미래사회의 설계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같은 논점에 대한 뚜렷한 대비적 목소리를 통해 생산적 논쟁의 뚜렷한 자취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제시했다는 견해에 기자들은 동의했다.

《서울생활의 재발견》은 거대 도시공간에 대한 사실주의적 분석과 서울을 담은 사진 그림 등의 예술을 통해 '서울 읽기'의 한 전범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로써 독자들은 서울살이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체득할 수 있으리라는 게 〈출판저널〉의 생각이다.

《저녁의 무늬》와 《이상한 나라에서 온 스파이》는 우리 문단의 중요한 자리를 점하고 있는 시인 박형준의 산문집과 작가 최인석의 장편소설로서, 박씨는 독특한 시적 아우라를 형성하고 있는 시인의 사유세계를, 최씨는 극단의 자학증세를 가진 인물을 통해 진실로 위장된 현실의 허구세계를 형상화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른바, 제대로 된 산문과 응집력 있는 장편소설이 귀한 문단에 이들의 작품은 분명 생산적 소득으로 편입될 것이다.

《오페라, 행복한 중독》은 100편의 오페라에 대한 친절한 해설을 뛰어넘어 오페라에 대한 환상을 경계하고 예술적 본질에 대한 성찰까지 담아낸 역저로 분석됐다. 우리는 이 책이 오페라 감상 취미를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면서 각각의 오페라에 대한 예술적 잣대의 기능을 훌륭히 소화할 것이라고 믿는다.

위의 역저들에도 불구하고 〈출판저널〉 기자들은 5명의 언어학자들이 쓴 《한국어가 사라진다면》에 더욱 주목했다. 이는 문화표현의 기초단위에 속하는 한국어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어가 사라졌을 때를 가정한 문화충격의 실상을 미리 상정해 보면서 그 단서들을 동시에 들이밀어 자각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있다. 특히 그러한 상정과 현 상황의 실체적 진실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는 것은 저자들의 인식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고 한국어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저작하게 하는 단서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출판저널〉의 인식이다. **김민**